

도서관계 각 단체의 새해구상

지난해에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보화추진계획'에 따른 전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설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지원, 3개 도교육청의 사서교사 채용 시험 실시, 각 종 언론과 방송에서의 독서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 도서관 발전을 위한 각계 각층의 관심이 활발한 한 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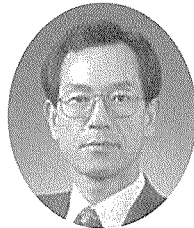
하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 명칭변경, 민간위탁의 문제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서직 고용불안정 현상 등은 우리 도서관계가 올 한 해 피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다.

바야흐로 21세기가 본 궤도에 오른 2002년 새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 편집자 주

[설문사항]

- ① 귀하께서는 2002년도 도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② 귀 단체의 올 한해 중점 추진사업 방향을 간략히 알려 주십시오.

공공도서관협의회 신현택 회장



① 정보통신기술과 IT산업의 발달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증가로 이제까지의 자료 수집, 이용, 보존에 이르는 전통적인 도서관 시스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도서관마다 디지털 자료실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아울러 전통적인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모든 공공도서관이 2006년도 제72차 IFLA 서울 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② 첫째, 도서관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강화에 힘쓰고자 한다. 규모별 도서관 실정이 감안된 차별화 된 도서관협력방안 등 현실적인 공공도서

관 협력사업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도서관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 내 학교, 대학도서관 등과의 연계 서비스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둘째, 특별연구위원회 연구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사업 개발 등 공공도서관 실무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 분과별 수시 모임을 통하여 과제연구활동을 진행토록 할 것이다. 유익하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 결과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반영하고자 한다.

셋째,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국제적 안목과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IFLA 서울 대회 개최 준비에 발맞추어 국제회의의 경험 습득 및 선진 도서관 운영실태 견학 기회를 확대하여 세계화·전문화에 따른 사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넷째, 공공도서관 직원들간의 의견 교환 및 업

무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신설 공공도서관 등의 협의회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회원도서관과 소속 직원들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연 1회 총회 개최, 2회 운영위원회 개최, 각 지부별 회의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업무 향상을 위한 각 종 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도협 광주·전남지구협의회

김선남 회장

① 인류가 지식 정보시대인 21세기의 본격적인 궤도를 달리고 있는 2002년도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정보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함으로써 지난 2000년부터 3년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다. 공공도서관과 일부 학교도서관, 문고에 디지털자료실이 설치 완료됨으로써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도서관이 국민들의 명실상부한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은 물론 더 나아가 지식 선진국의 기틀이 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등의 활동이 더욱 확산되어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낙후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하는데 힘쓰는 시점이 되리라 본다.

한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과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향후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일반 재정 부담을 확대하고 정책자문, 집행기능도 시급히 회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② 첫째는 정보화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사립도서관장 및

직원, 각 급 학교 교장·사서담당, 대학도서관 사서담당을 대상으로 5월과 11월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는 광주·전남 초·중·고등학생들의 독서를 통한 사고력과 논리력 향상과 독서의욕 고취를 위해 9월 독서의 달에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김종찬 회장



① 대학도서관은 2001년의 서지 DB 국고지원 사업과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동목록이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유발하는 공동 수서 등의 효율적인 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제는 자리 매김 한 지방자치화에 따라 지역과 대학도서관이 연합하는 구조의 체질 변경이 기대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일선을 지키는 현장의 모든 사서 선생들의 건승과 발전이 가장 기대된다.

②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는 "전문대학도서관의 발전은 물론 이용자들이 감동 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능력을 고취하고 대학 도서관의 상호협력과 사서들의 긴밀한 업무 교류를 지원하자"라는 커다란 목표를 설정하고 발을 내디딘 지 어느덧 7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금년도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와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운영의 행정업무 지원 협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문 사서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협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원의 교육연수 강화, 전문대학 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자료집 발간, 회원간의 유대감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사서 인명록 발간 및 소식지 간행 등 많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타 도서관에 비해 열악하기만한 전문대학 도서관의 현실을 직시하여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윤영대 회장**



① 2002년의 우리 도서관계는 21세기 지식 강국 구현을 위하여 도서관 정보 인프라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지식강국 구현을 위한 국가인적자원 정책」이 착실하게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게 되면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지원 교육정보센터로, 대학도서관이 학술·연구의 종합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로, 공공도서관이 정보·교육·문화·평생학습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아울러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배치가 필수적이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확보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고, 국제도서관연맹(IFLA) 서울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② 첫째는 학술상 시상 (매년 6월에 시상) : 본 학회에서는 올해 제2회 학술상을 시행하게 된다. 학술상은 연구상과 우수논문상으로 나누고, 연구상은 본 학회 회원 중에서 그 동안의 연구와 저서 및 논문, 학술활동을 종합 심사하고, 우수논문상은 본 학회 회원 중에서 2001년도에 본 학회 학회지(32권 1호부터 32권 4호까지)에 제출한 논문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시상할 것이다. 교수와 사서 등 연구자들에게 연구의욕을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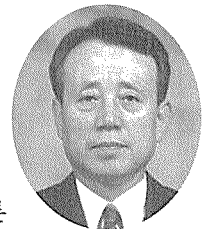
돋아 주어, 양질의 논문을 쓰게 하고, 나아가 도서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는 학회지 충실화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현재까지 32권 4호(2001.12)까지 발행되었다. 그 동안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학술진흥재단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는 두 번째로 실시하는 본 학회의 「학술상」인 「연구상」과 「우수논문상」제도를 계기로 논문투고 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논문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우수학술지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할 것이다.

셋째는 각종 학술행사 개최 : 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동계학술발표회 등 각종 학술 행사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주제의 논문 발표로 내실을 기하고, 도서관계와 학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다.

넷째는 회원배가 : 현재 개인 회원 480여명, 단체회원 170여 기관으로 650여 회원을 가진 한국도서관·정보학회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 성장하였다. 2002년도에는 전국의 사서들과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생들에게 그 동안의 활동을 홍보하여 회원 배가 운동을 펼 것이다. 그리하여 현장의 사서와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생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설 것이다.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한성택 회장**



① 정보사회의 성숙,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정부 각 관련 부처에서의 도서관 육성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따른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움직임,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운동의 결과 학교도서관육성법 제정의 구체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전향적 내용으로의 개정 작업 착수, 신기남 협회장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국민지도 상승과 의정활동 강화로 인한 도서관계 발전에 대한 영향력 증대 등 일련의 주변 환경 변화가 모두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희망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② 첫째, 현장의 요구에 따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서직의 양성배출에 있어서 보다 특성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특성화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내용 개편”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자격증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독서지도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연구 및 자격증 발급 업무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셋째,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재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전문대학 교육의 3년제 도입을 위한 예비 검토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다섯째, 졸업생들의 재교육의 일환으로 심화교육과정 설치의 추진과 이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여섯째,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올바른 정의 정립과 관련하여 “도서관및서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사서자격 기준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며, 전체 도서관계의 각 종 사업과 운동에도 적극 참여 협조할 계획이다.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전지성 회장



① 결론적으로 그 어느해 보다 희망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로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은 도서관 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

되어 있으며, 특히 이 노력들이 각 언론사들의 기획물들과 맞물려 더욱 큰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로는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월드컵과 어울려 순조로운 향해를 보장받고, 또한 대선이 있어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을 통한 도서관계의 도약이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도서관의 명칭변경, 관장의 행정직 임용 등 도서관 현안은 산적되어 있는데 반해 도서관인들의 단합된 힘이 부족함을 어떻게 보강해야 하느냐가 큰 숙제가 되리라 본다.

②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도 작은도서관 도약을 위해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왔다. 특히 이 운동이 국민들의 품에 안긴지 10주년을 맞이해서 특히 작은도서관 운동의 재조명을 통한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땀 흘릴 것이다.

- 전국 작은도서관들의 네트워크화
- 10주년 기념대회
- 작은도서관 모델 설립
- 작은도서관백서 발간
- 작은도서관 교육 정기 실시
- 1동(洞) 1작은도서관 설립운동 전개

서울시도서관연구회

임윤철 회장



① 2002년도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안)”을 살펴보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춰 도서관을 “정보화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2002년의 우리 도서관계는 디지털도서관의 확충과 함께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가속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계획에 들어있는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 검토, 도서관 유사명칭(문화정보센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정보관 등) 증가에 대한 분석, 사서자격증 제도 검토 등 그동안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온 현안 과제들에 대한 도서관인들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현실과 맞지 않는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을 개정·보완하여 도서관이 그야말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② 서울시도서관연구회가 21년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최근 3~4년 동안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회 활동이 위축되고 정체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금년에는 연구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도서관 정보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회원 학술세미나 개최
- 각 분과위원회(행정·전산·정리·봉사)별 연구발표회 개최
- 회원들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수렴할 수 있는 자체 홈페이지 구축
- 회원들의 자질 향상과 교양 함양을 위한 명사 초청 강연회 개최
-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그룹 미팅 및 등반대회 개최
- 회원 연구회지 제19집 발간

부산도서관연구회 조진화 회장

① 2002년도 도서관계를 전망해 보면 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 계절은 봄이로

되 봄이 아닌 것이 우리 도서관의 현실이 아닐지. 대통령 정책 자문기구 토론회에서 논의된 공공도서관의 위탁 운영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도서관계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화 거점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얻는 일에 힘써야 한다.

② 안으로는 회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밖으로는 사서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 상반기의 연구회 세미나 개최와 함께 각 부서별 활동을 강화하고, 연구회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독서관련 정보 제공, 자녀독서지도 등에 대한 전문사서들의 온라인 참고 봉사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학교와는 독서교육과 교과 연계 독서활동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언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연구회 스스로는 회원들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직무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구공공도서관사서회 임무원 회장

①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큰 명제가 되고 있는 만큼 도서관계에서도 <디지털자료실> 개설 및 디지털 정보 서비스라는 업무가 큰 비중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사서들의 업무 다양화 및 관련 전문 지식의 배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다수의 공공도서관이 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평생학습사 배치 문제가 도서관계의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② 대구공공도서관의 홍보를 위해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기간에 인구밀집 지역에 독서를 권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다. 또한 결식아동 및 불

우이웃 돕기를 시행하여 대구공공도서관사서회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서직의 권익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광주빛고을사서회 윤종일 회장

21세기에는 디지털 미디어가 사회의 주도적 매체로 자리잡아 정치·경제·문화·예술 등 삶의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서구의 근현대성의 근원에는 개인의 발견, 민족국가의 등장, 근대 민족주의의 여러 원칙의 확립, 종교혁명, 시장경제, 경험주의적 과학주의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인쇄매체와 대중매체의 등장과 함께 나타났던 것들이다.

이제 서구 근현대 문명의 기반이 되었던 대중매체는 인터넷을 위시한 여러 디지털 미디어에 그 주도적 위치를 내주고 있으며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가 가져올 새로운 문명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 우리 도서관인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도서관연구회 김병호 회장

① 기존 흐름에 큰 변화는 없겠으나 점차 도서관이 인터넷, 디지털 매체 등을 통하여 자료 검색 및 이용자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지원이 미비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선도자로서 도서관인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② 첫째, 회원간의 상호교류 및 단합을 도모하고, 디지털도서관 시대에 맞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주제별 분과 모임을 결성하여, 분과별 세미나를 수시로 마련하고 미진한 부분은 연 2

회 도서관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 KOLASⅡ 설치 운영(2월 현재 6개도서관 운영중)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용자 서비스 및 도서관 홍보를 할 계획이다.

이 설문은 한도협 부산지구협의회장, 한도협 대구·경북지구협의회장,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장,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장,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장,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장,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장,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 한국문헌정보학회장, 한국정보관리학회장, 서지학회장,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장, 도서관운동연구회 대표,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대표, 학교도서관연구회장, 어린이도서관연구회장,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광주사우회장, 울산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장, 경기도사서연구회장, 강원도도서관연구회장, 충청남도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장, 전남공공도서관연구회장, 경상북도사서연구회장, 경남공공도서관연구회장,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장,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교육인적자원부조정2과(총44개 단체) 등에도 보냈으나 마감일 전에 도착된 원고만 이번 호에 게재하였음. ■ 편집자주